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Child Abuse on Children's Depression/Anxiety: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우수정¹

Su Jung Woo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hild abuse,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children's depression/anxiety. In addition,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between child abuse and children's depression/anxiety was investigated.

Methods: Using the data of 396 children in grades 4~6 from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15), this study was conducted by apply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 abuse had a direct influence on children's depression/anxiety, and self-esteem. Second, children's self-esteem had a direct influence on depression/anxiety. Third, children's self-esteem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children's depression/anxiety. Fourth,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had a direct influence on self-esteem. But, children's peer attachment did not have a direct influence on depression/anxiety. The effect of children's peer attachment on their depression/anxiety was partially mediated by children's self-esteem.

Conclusion/Implications: In conclusion, child abuse, children's peer attachment and self-esteem have a direct or indirect impact on the depression/anxiety of children.

¹ 제1저자(교신저자)

위덕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e-mail : sjwoo@uu.ac.kr)

▶ **key words** child abuse, peer attachment, self-esteem, depression/anxiety

I. 서론

학령기 아동은 학교라는 사회적 집단 속에서 학업적 성취에 대한 기대를 보다 더 많이 받게 되고,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친밀한 우정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하는 시기에 있다. 이러한 발달과정 속에서 아동은 당면하게 된 과업들을 해결해 나가며 성취감을 획득할 수도 있지만 이와 동시에 많은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아동이 성장해가면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를 모두 경험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과도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경험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신현균, 2006). 특히 나이가 어린 아동의 경우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우울 및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일단 아동에게 발생한 우울 및 불안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지속성을 지닐 위험성이 있다(Harrington, Fudge, Rutter, Pickles, & Hill, 1990).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의 우울증 발생률이 성인보다 더욱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정영주, 정영숙, 2007).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청소년기 우울 및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기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은 내재화된 문제행동의 한 요인이며 이러한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박혜미, 2010; 유영신, 유연옥, 2015; Patrick, Snyder, Schrepferman, & Snyder, 2005). 이러한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형태인 학대는 보호자나 성인이 아동의 복리에 해로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행위나 방임,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노병일, 2016). 아동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대상인 부모는 아동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할 존재이기에 아동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의 경험은 아동에게 무엇보다도 커다란 고통을 주고 이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Cicchetti & Toth, 2006). 부모의 학대는 아동기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위험 요인 가운데 매우 부정적인 요인 중 하나로써 아동의 전반적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부정적 결과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에 보다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지영, 2002; 김수정, 정익중, 2013; 김형모, 김영민, 2007; Bolger & Patterson, 2001; Toth, Manly, & Cicchetti, 1992). 이러한 학대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져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는 학대에 대한 통계 자료의 경우 실제 신고 된 사례에만 근거하기 때문이다(노병일, 2016). 따라서 아동의 발달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모든 환경을 넓은 의미의 학대로 간주해 볼 때(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2015), 일반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양육행동 가운데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인 학대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아동의 내재화된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최초의 친밀한 일차적 애착대상자인 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아동의 이후 대인관계의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Bowlby, 1969), 부모와의 관계는 아동의 또래애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이희영, 배효심, 2007; 정지나, 이영, 2006).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적이고 지지적이며 관심을 가지고 감독을 할수록 아동의 또래애착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부모가 자녀에게 적대적이고 비합리적이며 거부적이거나 또는 방임할 경우 아동의 또래와의 애착이 낮게 나타났다고(김민수, 2012; 장인실, 장석진, 2012). 따라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아동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로부터 학습된 부정적인 관계양식을 적용하게 되어 친밀한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여진다(우수정, 2013; 이복희, 2007; Shonk & Cicchetti, 2001). 그리고 부모의 학대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또래

애착이 잘 형성되지 못할 경우 아동은 주요한 사회적 관계형성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김재엽, 정윤경, 이진석, 2008),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아, 2011; 장안나, 노안영, 임수진, 2008). 이에 아동기 부모 학대가 또래애착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 이러한 부모 학대가 또래애착이라는 주요한 사회적 관계 형성 정도에 따라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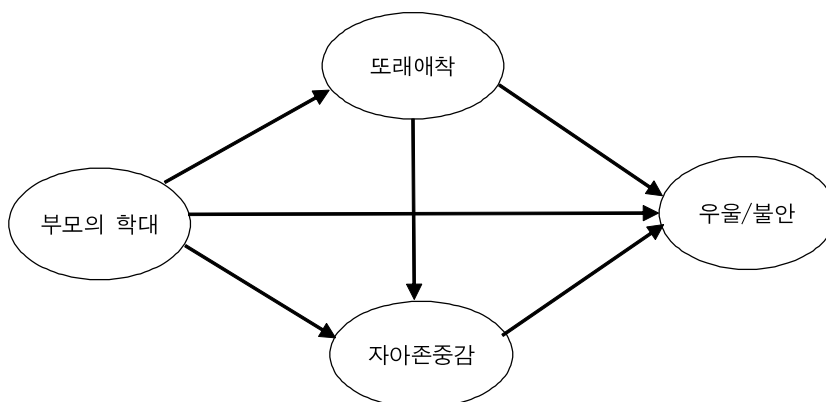
다음으로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을 들 수 있는데,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해 판단과 이러한 판단에 관련되는 감정이므로 개인의 정신건강과 매우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Hoyle, Kemis, Leary, & Baldwin, 1999).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불안한 정서 상태와 우울 증상을 나타냈으며(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 2012; Tennen & Herzberger, 1987),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에는 우울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양유정, 2012). 자아존중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후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 지속적으로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반영되어지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발달해 가므로(Rosenberg, 1979), 부모로부터의 부정적인 학대 경험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손상을 주게 된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된다(김나예, 2012; 박경진, 2005; 안형숙, 2014; 윤혜미, 1997; 정의중, 2007; 조미숙, 2003; Green, 1985; Kernis, 2002). 그러므로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우울 및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이재연 등, 2000).

이처럼 아동기 아동의 경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주요한 대인관계 대상으로는 부모 외에 아동에게 있어서 점차 중요한 사회적 관계의 위치를 차지해가는 또래를 들 수 있다. 즉 학령기 아동에게 있어서 부모는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제공하는 존재이지만 이 시기 아동은 점차 부모에 대한 정서적 유대감의 강도 및 의존도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또래와의 관계가 보다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부모와의 관계와 더불어 또래관계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전효정, 이귀옥, 2002).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또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활동을 함께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래와의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래의 지지 및 수용 등에 따라 자신을 평가하게 됨으로써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Damon & Hart, 1988). 이처럼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 및 또래와의 관계는 사회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는 이후 전반적 자아존중감으로 통합되어진다(Harter, 1990). 관련연구결과에서도 아동이 부모 및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연희, 박경자, 2001). 이처럼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또래와의 관계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며(Cole, 1991),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의해 이루어진 또래애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숙경, 문혁준, 2012; 정미선, 2010).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 본 결과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우

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아동기에 부모에게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은 아동은 또래와의 애착관계 역시 잘 형성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낮고 우울하고 불안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래애착,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와 이론적 모형은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이론적 모형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척도이며 모든 문항은 아동에 의해 평정되었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실시한 2015년 한국복지패널조사 10차년도 아동대상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은 초등학교 4~6학년 아동으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이 32.1%,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이 33.1%, 초등학교 6학년 아동

이 34.8%의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대상은 가구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미만이면 저소득층 가구, 그렇지 않으면 일반가구로 분류되어 있다. 소득수준이 낮다고 하여 반드시 학대 발생률이 높다고는 할 수 없으나,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아동학대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결과(김광혁, 2006)가 제시되기도 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고자 저소득층 가구는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총 471명의 아동설문 데이터 중 저소득층 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다시 이 가운데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미완의 가구를 배제한 후 최종적으로 396명의 아동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의 학대

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대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조사하였으며, 서울아동패널(2005)을 참조하여 신체적 학대 1문항, 정서적 학대 3문항, 방임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총 8문항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문항들을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이며, 정서적 학대는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부모님이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이다. 방임은 ‘내가 늦게 와도 부모님은 관심이 없다’, ‘부모님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한다’, ‘부모님은 내가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 채 한다’ 등이며, 각 측정 문항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에 대한 빈도를 기준으로 ‘전혀 없었다(1점)’, ‘1년에 1~2번 정도(2점)’, ‘2~3개월에 1~2번 정도(3점)’, ‘한 달에 1~2번 정도(4점)’, ‘일주일에 1~2번 정도(5점)’로 표시된 5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에 대한 3가지 하위변인을 통합한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68로 나타났다.

2)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서울아동패널(2005)의 문항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의 총 4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항상 그렇다(4점)’로 표시된 4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또래애착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5였다.

3) 자아존중감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경험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한국어판 아동용 10문항과 Sherer와 Maddux(1982)가 제작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기초로 박현선(1998)이 재구성한 척도의 일부인 3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내가 좋은 자질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등의 총 1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거의 그렇지 않다(2점)’, ‘그런 편이다(3점)’, ‘항상 그렇다(4점)’로 표시된 4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5였다.

4) 우울/불안

우울/불안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의 생각 및 행동에 대한 척도인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그리고 하은혜(1998)가 번안한 K-CBCL 척도 중에서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해당되는 문항을 추출하여 총 1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생각 및 행동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조사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외롭다고 불평한다’, ‘잘 운다’,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 한다’ 등의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아니다(1점)’, ‘그런 편이다(2점)’, ‘자주 그렇다(3점)’으로 표시된 3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9.0 프로그램과 AMOS 7.0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전체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들 간의 구조 및 경로 확인을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ethod: ML)을 사용하여 모형검증을 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표본크기에 민감하고 영가설이 상당히 엄격한 χ^2 검증을 대신하여,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였으며 적합도 평가지수의 해석기준이 확립된 잔차제곱평균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표준부합치(Tucker-Lewis Index: TLI), 그리고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 CFI)를 적합도 지수로 사용하였다(홍세희, 2000).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량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은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또래애착은 문항평균점수가 3.43점 ($SD = .47$)으로 4점 척도임을 고려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우울 및 불안

<표 1>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 = 396)

변인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부모의 학대	.10	.19	2.51	7.09
또래애착	3.43	.47	-.74	1.27
자아존중감	3.23	.42	-.37	.45
우울 및 불안	1.25	.29	2.41	7.63

경우 문항평균점수가 3점 척도 기준으로 1.25점($SD = .29$)으로 보통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4점 척도로 구성된 자아존중감 역시 문항평균점수가 3.23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대는 문항평균점수가 1.13점($SD = .27$)으로 5점 척도임을 감안해 볼 때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의 대상을 학대 유경험 집단에 제한하지 않고, 일반아동집단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나타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부모의 학대의 경우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인 왜도가 3보다 작고 첨도가 10보다 작은 기준을 벗어난 관계로(Kline, 2010), 로그변환을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학대 문항평균점수는 .10($SD = .19$)로 나타났다.

2.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측정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 간의 상관을 살펴보면($r = -.04, p > .05$),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래 애착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는 부적상관관계를 나타내어($r = -.23, p < .001$), 부모의 학대를 경험할수록 아동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대와 우울 및 불안 간의 관계에서는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 .30, p < .001$). 즉 부모의 학대가 이루어질수록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은 높아졌다.

다음으로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42, p < .001$). 이는 또래와의 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래애착과 우울 및 불안 간에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나($r = -.17, p < .01$), 또래와의 애착형성이 잘 이루어질수록 우울 및 불안이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자아존중감과 우울/불안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N = 396)

구분	1	2	3	4
1. 학대	1.00			
2. 또래애착	-.04	1.00		
3. 자아존중감	-.23***	.42***	1.00	
4. 우울 및 불안	.30***	-.17**	-.45***	1.00

** $p < .01$, *** $p < .001$.

나타냈는데($r = -.45, p < .001$), 이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이 덜 나타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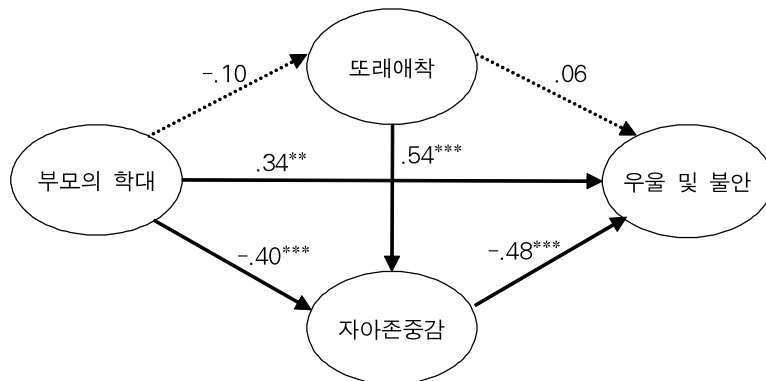
3.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이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설검정에 앞서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TLI = .90, CFI = .94, RMSEA = .07$ (90% 신뢰구간 .05~.09)로 나타나 연구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p	TLI	CFI	RMSEA
연구모형	87.96	29	.00	.90	.94	.07

분석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부모의 학대와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와 표준화계수

주. 점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먼저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 = .34, p < .01$), 또래애착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10, p > .05$). 부모의 학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eta = -.40, p < .001$). 즉 부모가 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은 높아지고, 자아존중감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이 우울 및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beta = -.48, p < .001$),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검증한 결과 .01로써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1, p < .05$). 즉 부모의 학대를 경험함에 따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이를 통해 우울 및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아동의 또래애착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beta = .06, p > .05$),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54, p < .001$). 즉 아동은 또래와의 애착형성이 잘 이루어질수록 자아존중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우울/불안에 유의미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beta = -.48, p < .001$),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우울/불안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이 유의한지 확인한 결과 .01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6, p < .05$). 즉 아동의 또래애착 형성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우울 및 불안의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표 4>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모의 학대 → 또래애착	-.10	-	-.10
부모의 학대 → 우울/불안	.34*	.21*	.55*
또래애착 → 자아존중감	.54*	-	.54*
부모의 학대 → 자아존중감	-.40*	-.05	-.45*
또래애착 → 우울/불안	.06	-.26*	-.20
자아존중감 → 우울/불안	-.48*	-	-.48*

* $p < .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강지영, 2002; 김수정, 정익중, 2013; 김은경, 이정숙, 2009; 김형모, 김영민, 2007; Bolger & Patterson, 2001; Kaplow & Widom, 2007; Toth, Manly, & Cicchetti, 1992)와 일치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나타내는 양육행동 가운데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장 부정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학대는 아동으로 하여금 고통과 힘겨움을 경험하게 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아동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우울 및 불안을 느끼게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발달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학대

를 가하는 부모와 학대를 당하는 아동 모두에게 부모교육 및 중재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또래애착을 통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아동의 또래애착 역시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또래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결과(김민수, 2012; 장인실, 장석진, 2012; Shonk & Cicchetti, 2001)와 아동의 또래애착이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진아, 2011; 장안나 등, 2008)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학대로 인해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의 기반을 다지지 못한 아동이 또래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부모와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아동이 이후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경우 일반가정에서의 학대 출현정도를 살펴 본 결과 학대의 실제 평균은 1.13점으로 아동들이 인식하기에 일년에 1~2회 정도의 학대도 별로 경험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해 볼 때 부모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한 학대가 우려할 만큼 빈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또래와 같이 주요한 또 다른 사회적 대상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해 학대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또래애착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재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아동의 또래애착이 잘 형성될수록 아동의 우울과 불안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아동기의 또래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점차 영향력을 행사해 나간다고도 상대적으로 우울 및 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추후연구에서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주었다. 즉 가장 친밀한 관계이어야 하는 부모에게서 학대라는 부정적 사건을 경험한 아동은 자신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였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부모와 같은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가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Rosenberg (1979)의 의견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나예, 2012; 박경진, 2005; 안형숙, 2014; 윤혜미, 1997; 정익중, 2007; 조미숙, 2003; Green, 1985; Kernis, 2002; Okun, Parker, & Levendosky, 1994)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 및 불안을 보다 더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 역시 선행연구결과(김선미 등, 2012; 양유정, 2012; Tennen & Herzberger, 1987)를 지지하였다. 이처럼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부모의 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인 우울 및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Kim, 2008). 이를 위해 학대를 경험했다고 인식하는 아동에게 학대가 발생한 이유가 아동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학대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육적 접근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덧붙여서, 본 연구결과에서는 아동이 학대를 일 년에 1~

2번 정도도 별로 경험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상황임에도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심각한 형태의 학대가 아닐지라도 학대를 경험했다는 인식이 아동의 내재화된 문제행동에 대한 주요한 변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앞서 학대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경우 또래애착과 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상호작용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형성되는 관계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라도,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 같은 개인내적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해 주고 이는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었다. 이처럼 긍정적으로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을 감소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이는 또래와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여 또래애착이 형성되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높여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양숙경, 문혁준, 2012; 정미선, 2010; 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또래와의 애착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자아존중감 향상은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인 또래애착 형성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을 통한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과 더불어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또래와의 관계개선을 함께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부모의 학대와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은 직·간접적으로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래와의 애착은 자아존중감을 통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아동의 부정적이고 내재화된 문제행동의 하나인 우울 및 불안을 감소시키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어서, 학령기 아동의 경우 또래와의 긍정적인 애착형성을 통한 자아존중감 증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부모와의 관계개선과 이를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이 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는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기에 이 외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아동대상 10차 부가자료라는 점에서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자아존중감, 우울 및 불안 측정에 있어서 아동이 지각한 자기보고형 척도가 사용되었다. 아동 자신이

지각한 주관적 인식에 초점을 맞췄다는 데 의의를 둘지라도 아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부모나 교사의 평가를 통한 측정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는 가구균등화된 경상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60%이상인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과적용을 해야 함을 밝히며, 추후 연구에서 학대의 빈도와 정도에 따라 높은 수준의 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과의 비교연구 등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해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학대,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이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관련연구를 확장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반가정에서 일 년에 한두 번 발생한 학대경험일지라도 아동에게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가정에서 은연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학대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는 점과 이를 통해 아동의 우울 및 불안 뿐 아니라 아동의 전반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및 중재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지영 (2002). 피학대 아동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혁 (2006). 가족배경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5, 53-74.
- 김나예 (2012). 다문화 가정아동의 학대경험 수준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동의 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민수 (201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미, 고하영, 박수현, 양은주 (2012). 메타분석을 통한 국내아동 청소년의 우울 관련 및 변인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4), 533-555.
- 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2015). **아동복지론**. 경기도: 양서원.
- 김수정, 정익중 (2013). 아동학대가 우울,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지속 효과와 최신 효과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3, 1-28.
- 김연희, 박경자 (2001).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귀인 성향과 아동의 자아 존중감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49-64.
- 김은경, 이정숙 (2009). 아동의 학대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18.
- 김재엽, 정윤경, 이진석 (2008).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이 학교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지지적 사회관계망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5(4), 89-115.

- 김진아 (2001). 청소년의 가족 및 또래 환경과 우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모, 김영민 (2007). 부부폭력 목격과 아동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1(1), 31-60.
- 노병일 (2016). **아동복지론**. 경기도: 공동체.
- 박경진 (2005).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혜미 (2010). 어머니의 양육행동, 남녀 유아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아동패널 (2005). **서울 아동발달 및 복지실태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신현균 (2006). 청소년의 신체증상 경험에서 부정적인 정서의 영향 및 정서표현과 자기개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3), 727-746.
- 안형숙 (2014).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1), 185-203.
- 양숙경, 문혁준 (2012). 가족기능, 또래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일반자녀와 직업군인자녀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9(2), 115-130.
- 양유정 (2012). 자아존중감과 가족스트레스가 중년부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커플관계 자료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8).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우수정 (2013).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학령기 아동의 또래애착이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1(6), 583-590. doi:10.6115/fer.2013.51.6.583
- 유영신, 유연옥 (2015).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문제행동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7(3), 123-140.
- 윤혜미 (1997). 아동의 학대 및 방임 경험이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지각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 95-120.
- 이복희 (2007). 부모의 아동학대와 아동의 적응변인 연구. **교육문화연구**, 13(1), 99-121.
- 이재연, 홍강의, 조홍식, 이양희, 안동현, 광영숙 등 (2000).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I. **아동과 권리**, 4(2), 97-112.
- 이희영, 배효심 (2007). 학령기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15(2), 127-143.
- 장안나, 노안영, 임수진 (2008). 학교상담: 지각된 초기 대상관계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9(2), 727-737.
- 장인실, 장석진 (2012).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9(6), 291-313.
- 전효정, 이귀옥 (2002).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인식에 미치

- 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9(2), 191-210.
- 정미선 (201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또래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5, 140-173.
- 정영주, 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 지지간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정익중 (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과정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정지나, 이영 (2006).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또래 유능성. **아동학회지**, 27(4), 65-80.
- 조미숙 (2003). 가정폭력과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7, 75-88.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산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olger, K. E., & Patterson, C. J. (2001). Development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72(2), 549-569. doi:10.1111/1467-8624.00296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Y: Basic Books.
- Cicchetti, D., & Toth, S. L. (2006). Building bridges and crossing them: Translational research i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3), 619-622. doi:10.1017/S0954579406060317
- Cole, D. A. (1991). Change in self-perceived competence as a function of peer and teacher evalu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4), 682-688. doi:10.1037/0012-1649.27.4.682
- Damon, W., & Hart, D. (1988). *Self understanding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 A. (1985). Child abuse and neglect. In D. Shaffer, A. A. Ehrharot, & L. L. Greenhill (Eds.), *The clinical guide to child psychiatry* (pp. 315-325). NY: The Free Press.
- Harter, S. (1990). Issues in the assessment of the self-concept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A. M. La Greca (Ed.), *Through the eyes of the child: Obtaining self-reports from children and adolescents* (pp. 292-325).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Harrington, R., Fudge, H., Rutter, M., Pickles, A., & Hill, J. (1990). Adult outcomes of childhood and adolescent depression: I. Psychiatric statu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7(5), 465-473. doi:10.1001/archpsyc.1990.01810170065010
- Hoyle, R., Kernis, M., Leary, M., & Baldwin, M. (1999). *Self-hood: Identity, esteem, and regulat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 Kaplow, J. B., & Widom, C. S. (2007). Age of onset of child maltreatment predicts long-term mental health outcom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1), 176-187. doi:10.1037/0021-843X.116.1.176
- Kernis, M. H. (2002). Self-esteem as a multifaceted construct. In T. M. Brinthaupt & R. P. Lipka

- (Eds.), *Understanding early adolescent self and identity* (pp. 57-88).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Kline, R. B. (2010).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NY: The Guilford Press.
- Kim, H. (2008. 9). *Domestic violence and depressi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제 1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구두발표 논문, 서울.
- Okun, A., Parker, J. G., & Levendosky, A. A. (1994). Distinct and interactive contributions of physical abuse,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negative life events to children's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adjust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57-77. doi:10.1017/S0954579400005897
- Patrick, M. R., Snyder, J., Schrepferman, L. M., & Snyder, J. (2005). The joint contribution of early parental warmth, communication and tracking, and early child conduct problems on monitoring in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6*(5), 999-1014. doi:10.1111/j.1467-8624.2005.00893.x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estee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Sherer, M., & Maddux, J. E.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Shonk, S. M., & Cicchetti, D. (2001). Maltreatment, competency deficits, and risk for academic and behavioral maladjust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7*(1), 3-17. doi:10.1037/0012-1649.37.1.3
- Tennen, H., & Herberger, S. (1987). Depression, self-esteem, and the absence of self-protective attributional bia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72-80. doi:10.1037/0022-3514.52.1.72
- Toth, S. L., Manly, J. T., & Cicchetti, D. (1992). Child maltreatment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1), 97-112. doi:10.1017/S0954579400005587

논문투고: 17.08.04
수정원고접수: 17.08.13
최종게재결정: 17.08.19